



BSTECH Best solution
Technology

태양광 · ESS · 연료전지 · 구조물

공사지명원

A p p l i c a t i o n

|주|비에스텍

To be responsible for the customer's interests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 01/ 신재생에너지 전문 기술자들이 시공하으로써 철저한 품질관리, 일정관리, 안전관리를 약속합니다.
- 02/ 좋은 품질의 공사가 진정한 영업이며 광고라 생각하고, 현장 여건에 맞게 최선을 다해 시공할 것을 약속합니다.
- 03/ 지금까지 쌓은 신뢰를 바탕으로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발전 설비, 풍력설비 시공, 에너지 저장장치 시설(ESS)까지, 오늘도 저희 임직원 및 기술진은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합니다.

Information

회사소개

인사말

언제나 고객 입장에서 생각하고 움직이는 (주)비에스텍은 태양광 발전설비와 ESS(Energy Storage System, 에너지저장시스템) 설치 및 시공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친환경에너지 개발에 앞장서는 기업입니다.

「To be Responsible for the Customer's Interests(고객의 이익을 최우선으로)」를 슬로건으로 토지개발 인허가부터 시공, 운영까지 One-stop으로 컨설팅하고 있으며 토목, 구조물, 기초공사, 전기공사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현장을 담당함으로써 고객과의 신뢰를 쌓고 있습니다.

세계 제일의 에너지 기업을 꿈꾸며 자연과 인류를 먼저 생각하는 (주)비에스텍과 함께해 주십시오.
믿음직한 전문성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주)비에스텍 임직원 일동



상호	주식회사 비에스텍
대표이사	최 한 길
주소	본사: 대구광역시 동구 이노밸리로 42길 20-2 공장: 경산시 진량읍 가야리 102 비에스텍공장 http://www.bstechess.co.kr/
연락처	Tel. 053-636-0406 / H.P. 010-3818-5385 FAX. 053-639-0406
사업자등록번호	598-87-00487
면허 보유번호	전기공사업 대구-01117호
사업영역	신재생발전 설비공사, 태양광공사, 구조물제작설치, ESS, 연료전지, O&M

Organization 조직도



Organization 사업영역



Technical expert 기술자 보유 현황

성명	기술자격종목 및 등급	경력
최한길	특급기술자	25년
	전기기능장	
	특급감리원	
	전기설계사	
	전기공사기사	
	전기기사	
박종표	토목기술자	40년
오종진	건축기사	20년
주용진	전기설비기사(설계, 제작, 사공)	25년
양이석	전기현장소장	25년
김봉환	신재생설비기사	10년
김명환	신재생에너지발전 설비기사	10년
황준식	초급전기기술자(설계, 인허가, 시공관리)	5년
최익수	중급전기기술자	25년
권영철	고급전기기술자	30년
백영식	태양광설비, 구조물 시공 기술자	25년

다양한 현장경험을 겸비하여 실무위주의 전문 기술진으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완벽한 실무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Company Facilities 회사시설

■ 본사



■ 경산 제조공장 및 보유 시설



■ 차량 보유현황 (현장용 3대, 업무용 3대)



Registration / Certification

등록증 및 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전기공사업 등록증



|해외건설협회 전기공사등록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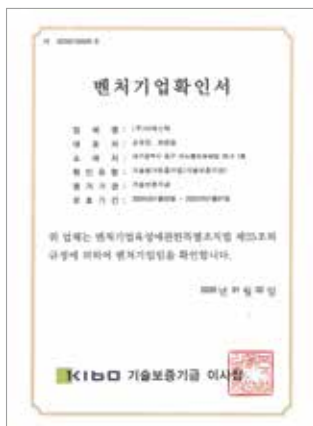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중소기업 확인서



|여성기업 확인서



|벤처기업확인서



|이동식 가설가동 특허증



|지붕 설치장치 특허증

Major
Construction
Performance
주요공사실적

2017-2018

연도	공사명	용량
2017	경기도 과천 오수 태양광 발전소	99.96KW
2017	충남 논산 황금 태양광 발전소	97.92KW
2017	대전 건양프라자 태양광 발전소	59.4KW
2017	강원도 춘천 써니밸리 태양광 발전소	287.82KW
2018	강원도 화천 해님 태양광 발전소	99KW
2018	충북 청주시 정민 태양광 발전소	99KW
2018	경산 제다 태양광 발전소	997.56KW
2018	경산 제다 ESS	1MW
2018	경기도 안성 울동1호 태양광 발전소	99.96KW
2018	서울 궁동 어린이도서관 태양광 발전소	15KW
2018	서울 금호 어울림센터힐 태양광발전소	114.12KW
2018	서울 신정이펜하우스1단지 태양광 발전소	209.16KW
2018	경기도 안산 선경아파트 태양광 발전소	163.35KW
2018	충북 제천시 다하랑 태양광 발전소	18.72KW
2018	경북 청도 동산햇빛 태양광 발전소	195.84KW
2018	강원도 원주 현대솔라 태양광 발전소	295.65KW

2017~2018년 총 누계 용량 : 4801.46KW

Major
Construction
Performance
주요공사실적

2019

연도	공사명	용량
2019	김제 울단 태양광 발전소	248.625KW
2019	대전 괴정성당 태양광 발전소	76.44KW
2019	대구 성진아노다이징 태양광 발전소	55.8KW
2019	경기도 익산 장평 태양광 발전소	239.76KW
2019	경기도 안성 일흥 태양광 발전소	900KW
2019	경기도 안성 에스엘 태양광 발전소	1902.42KW
2019	경기도 인천 생활공간 태양광 발전소	80.325KW
2019	제주 두뭇개 태양광발전소	99KW
2019	제주 바름 태양광 발전소	99KW
2019	경북 고령 원희 태양광 발전소	283.86KW
2019	함양 배도승 태양광 발전소	20.16KW
2019	진천 엘엔조 태양광 발전소	774.4KW
2019	영주 전진 태양광 발전소	98.28KW
2019	화성 동문 굿모닝힐 태양광발전소	225.6KW
2019	경기도 안성 대승 태양광 발전소	498.96KW
2019	제주 곱은달 태양광 발전소	498.76KW
2019	제주 성앤준 태양광 발전소	98.42KW

2019년 총 누계 용량 : 6,199,810KW

Major
Construction
Performance
주요공사실적

2020

연도	공사명	용량
2020	경북 구미 YJ 태양광 발전소	449.66KW
2020	경산 화성기계 태양광 발전소	173.5KW
2020	괴산 솔라캠퍼스 ESS 패드 & 전기공사	46MW
2020	경북 경주시 씨케이엠 태양광	200KW
2020	대구 매천시장 농산동 태양광	292.5KW
2020	대구 매천시장 수산동 태양광	498.75KW
2020	대구 팔공산 관리사무소 태양광	10.5KW
2020	대구 팔달시장 공영주차장 태양광	50.625KW
2020	대구 갯바위 관리사무소 태양광	10.5KW
2020	대구 올림픽 기념관 태양광	100KW

2020년 현재 총 누계 용량 : 47,786.035KW

Major
Construction Cases
주요공사사례



Major
Construction Cases
주요공사사례



Major
Construction Cases
주요공사사례



Major
Construction Cases
주요공사사례



Major
Construction Cases
주요공사사례



ESS

Construction Cases

제다 ESS 공사사례(3MW)



ESS

Construction Cases

괴산 ESS 공사사례 6개소(47MW)



CEO Major
Construction
Performance

대표자
주요공사실적

연도	공사명	용량
2012	성서공단 태양광 발전소	500KW
2013	성서 아파트형 공장 태양광 발전소	1000KW
2010	성주 태양광발전소	250KW
2014	세천공단 루프탑 태양광 발전소	100KW
2014	배수지 태양광 발전소	250KW
2015	정수장사업소 태양광 발전소	1000KW
2011	서산 태양광 발전소	11MW
2015	문경 수상태양광 태양광 발전소	1MW
2016	새만금 ESS 설치공사	11MW
2010	태국 사라부리 태양광 발전소	6MW

CEO Major
Construction Cases

대표자
주요공사사례



Related Articles

관련기사

시사뉴스타임 2018 11월호

대한민국의 힘 (주)비에스텍



태양광 발전소를 생각하는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허가부터 시공, 운영까지 건설팀 고가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최고의 기술을 자랑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와 맞물려 심각한 지구온난화 문제로 신에너지 개발에 앞 다투는 요즘, 태양광에너지에 대한 연구에 많은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다. 자연이 주는 선물 태양광은 친환경 에너지로 태양광, ESS등을 이용한 다양한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개발에 앞장서고 있는 (주)비에스텍(대표 최한길)은 신재생에너지의 전 분야를 아우르는 기술력으로 연구, 개발시공을 하고 있다. 최 대표는 대구에서 전기 공학을 전공하고 전기기사, 전기기능장, 전기고급설계사, 전기특급 감리원, 전기훈련교사 등 다양한 전기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진정한 엔지니어이다. 말씀씨가 좋은 영업인이 아닌 일꾼씨가 좋은 기술쟁이라고 스스로 자부하고 있다.

(주)비에스텍에서는 보다 많은 고객에게 만족을 주기위해, 신뢰받는 기업이라는 경영 방침으로 언제나 고객의 기대에 충족하는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풍부한 시공 경험을 가진 전문 기술자들이 직접 시공하여 철저한 품질관리, 일정관리, 안전관리가 가능하며 질 높은 공사로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키고 있다. 지금까지 쌓은 주력태양광 등 소량

에서부터 수상, 육상, 건축물, 에너지저장설비(ESS)까지 풍부한 경험과 기술력을 확보한 임직원들과 기술진이 포진하여 완벽하게 오디를 소화해내고 있으며, 실력있는 관련업체들과 컨소시엄등 건전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다양한 현장에서도 최대한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주)비에스텍의 주요 산업 내용을 보면 전기, 플랜트, 태양광, 에너지저장설비 등이다. 다양한 전기설비공사와 배전설비 전기공사, 지중화 케이블 공사, 그리고 플랜트 관련해서는 공장 신·중축 전기설비공사, 발전설비 전기공사, 발전설비 전기 공사 등이며 태양광 관련해서는 발전사업 건설팀, 개발 인허가, 태양광발전사업 설계 및 시공, 에너지 저장설비 시설(ESS), 주택용 태양광 설비 시공, 대용량 태양광 설비시공 등 전기 관련 사업은 물론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허가부터 시공, 운영까지 건설팀...



공사, 전기공사까지 모든 시스템을 회사 자체 솔루션으로 만들기 위해 준비 중에 있으며 그러기 위해 직원들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다.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직원들과 공유하고 그것을 현장에 최적화 시키도록 할 것이다. 수평관계가 아닌 수평관계로써 직원들의 각자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회사환경을 만들고 있고 그것에 따른 시너지효과를 올릴 것을 기대하고 있다. 최 대표는 한화에서 진행한 세단급 태양광발전 11MW 공사와 ESS(에너지저장장치)18MW 공사, 농어촌공사의 수상태양광 2.7MW 등 대구 상지공단 5개소 3.5MW 및 대구 상수도사업소 6개소 정수장 및 배수지에 6MW 공사 등 대기업 대형 프로젝트와 태극 사라부리 태양광발전설비 6MW 공사 등 해외 대형 프로젝트 현장에서 시동책임자로 참여하여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다. 현재 베트남 하노이부근에 200메가 공사 및 에너지 종합발전설비 컨소시엄으로 참여하고 있다. 또한 태양광 및 ESS시공능력을 인정받아서 경북, 경산시 전량공단이 30억짜리 프로젝트의 태양광 및 ESS 전력저장장치공사를 발주 받아 시공 중에 있으며 여러 전문 업체들과 ESS시스템 개발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다.

하버 500평의 토지를 활용하게 된다면 월 약 220만원의 매출이 발생하게 된다'고 자신있게 이야기 했다. 덧붙여 주택용 태양광 발전은 누진요금 발생에 있어서 그 비용을 줄이기 위한 최선책이며 남은 전력은 다음달로 이월하여 쓸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소개했다.

철저한 신뢰를 바탕으로 정직과 시공 후 유지 관리까지...

(주)비에스텍의 설비는 해외에서 그 효과가 입증된 설비들만을 선별하여 사용하여 단단한 내구성과 녹내상은 물론 기후에 의한 훼손이나 변형이 되지 않는 설비들을 사용하고 있어 고객의 만족도가 높다.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단연 최고와 자부할 수 있는 한화규격, 현대, 엘지태양광 모듈을 사용하고 있으며 그 제품들의 경우 25년간 효율보증을 하여 25년 동안은 걱정 없이 발전 사업을 할 수가 있다. 인버터 또한 국내외 최고품질의 인버터를 선별하여 각각의 성능에 맞게 태양광모듈과 제배치하여 전기 생산 능력을 최대한 높여 수익을 극대화 하고 있다.

(주)비에스텍은 다른 기업들과 차별화된 사업을 펼치고 있다. 최 대표는 "마케팅부터 설계 감리, 시공, 유지보수까지 태양광발전설비, 부지정지토목공사, 구조물제작설치

Related Articles

관련기사

■ [PowerKorea | September,2019] Future Energy

Future Energy

> ㈜비에스텍(공동대표: 최한길, 손유진)



자연과 환경을 생각하는 미래에너지 기업

최고 전문가들의 뛰어난 기술력, 정직한 시공으로 세계 제일의 에너지 기업을 꿈꾸다

BS Teack takes part in turning South Korea as eco-friendly powerhouse

글 | 섀넌킴 기자 ts79@naver.com

지나친 화석연료의 사용으로 환경오염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지금, 에너지 산업계 최대의 화두는 바로 '신재생에너지'다. 정부에서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의 발전량을 20% 늘리겠다고 선언했다. 화석연료를 재활용하거나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인 신재생에너지는 오염물질이나 이산화탄소 배출이 적어 환경 친화적인 장점을 지니고 있다. 대표적인 신재생에너지로 대변되고 있는 태양광 발전소는 친환경적인 에너지원 확대와 전기료 절감 등 직접적인 효과 외에도 노후대비나 연금형식으로 수익 창출이 가능한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태양광 사업투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태양광 발전소 시공업체들도 크게 증가하는 추세다. 이런 가운데 최근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으로서 태양광 발전소 및 ESS(에너지저장장치)사업 분야에서 (주)비에스텍 (공동대표:최한길, 손유진)이 돋보이는 활동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인류의 미래, 신재생에너지를 이끌어 나가는 태양광발전소

전 세계의 탄소 배출을 감축하기 위한 노력은 신재생에너지로 집중되고 있다. 한국 역시 2018년 12월 '재생 에너지 3020 이행 계획'을 발표하면서 신재생 에너지 사용 보급을 구체화했다. 현재 총 전체 에너지 발전량의 7%에 불과한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2022년까지 10.5%, 2030년에는 20%까지 달성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특히 대규모 프로젝트를 통한 태양광 발전소 보급에 집중할 방침이다.

국내의 차세대 에너지 저장 시스템 ESS(Energy Storage System) 시장은 2016년 300억 원에서 2020년 4400억 원 규모로 연평균 10% 성장이 예상된다. 글로벌 ESS 누적 설치 용량은 2016년 1.6MW, 한국(291MW)의 ESS 프로젝트 수는 58건으로 미국(571MW)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또한 스마트 그리드 [Smart Grid] 전력 공급자와 소비자 양방향 정보 교환을 위한 IT 기반의 전력망의 구축을 위해 2017년 부터 공공기관 ESS 설치자를 의무화하여, 모든 공공 기관에 ESS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자연과 인류,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 '㈜비에스텍'

2012년 RPS 사업을 도입하면서 태양광 발전은 햇빛연금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노후 수익 및 새로운 제테크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 RPS사업은 정부에서 태양광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에서 전기구매를 인증하는 제도다. 태양광 발전 수익은 SWP(한전계통연계가격)과 REC(공급 인증서) 수익을 합하여 얻어진다. 이처럼 최근 수익사업으로도 태양광 사업이 큰 각광을 받고 있으면서, 많은 시공업체들이 생겨 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신재생에너지 전문 기업 '비에스텍'은 '자연과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이라는 슬로건 아래 뛰어난 기술력을 앞세워 정직한 시공, 사업주 친화적인 시공 사업을 펼쳐며 큰 주목을 받고 있다. 비에스텍 손유진 대표는 태양광 발전소 사업에 대해서 '자연과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이라는 슬로건 아래 뛰어난 기술력을 앞세워 정직한 시공, 사업주 친화적인 시공 사업을 펼쳐며 큰 주목을 받고 있다. 비에스텍 손유진 대표는 태양광 발전소 사업에 대해서 '자연과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이라는 슬로건 아래 뛰어난 기술력을 앞세워 정직한 시공, 사업주 친화적인 시공 사업을 펼쳐며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유가등 주변상황에 사업성이 좌지우지 되지 않고, 영구적으로 사용되며, 발전량의 100%를 공급의무지(한국지역난방공사, 수자원자력, 포스코 에너지 등 18곳)에게 판매할 수 있다. 전력 거래소를 통해 REC판매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 할 수 있다' 라고 언급했다.

기초에 충실, 뛰어난 기술력, 정직한 시공으로 태양광 사업을 선도하는 '비에스텍' 하저발전소 최소화, 가장 긴 무상 AS기간, 완벽한 민원 해결

25년 이상 사용해야 하는 반영구적인 태양광에너지 발전소의 특성상 유지·보수비용을 절감하고, 안정적인 발전소 운영을 위해, 실력 있는 시공업체 선정이 매우 중요하다. 최근 태양광 발전소가 많이 건설되면서, 하자 및 보수AS, 민원 발생 등 많은 문제점들이 생겨나면서, 태양광사업은 양호화 국면에 들어서고 있다. 불만점을 느끼는 사업주들이 경쟁력 있는 대기업 위주로 시공을 맡기게 되면서, 작은 기업은 점점 힘들어지고 대기업은 점점 뻥뻥해지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비에스텍의 기초에 충실하면서 기술력 있는 시공, 정직한 시공은 비에스텍의 최고 경쟁력이다. 태양광 발전소 건설 과정을 보면 크게 토목, 구조물, 기초, 공사, 전기 공사로 나뉠 수 있다. 비에스텍은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이 자신의 전공 분야를 맡아서 공사를 진행한다. 최한길 대표는 직접 모든 현장의 감독과 지휘를 하고 있다. 시공 전 사업주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공사를 진행하여, 하자가 발생할 여지를 최소화함과 동시에, 태양광 발전소의 가장 큰 문제점인 ASD 철저하다. 비에스텍은 타 시공사보다 훨씬 긴 5년 동안 무상 AS를 제공하고 있으며, 작은하자가 발생하더라도 큰 문제로 번지지 않도록 사후 모니터링 또한 철저하게 실시하고 있다. 또한 대기업들과 협력하여 최고의 시설텔을 모든 소규모 발전소까지 적용하고 있다.

태양광 사업의 또 다른 큰 문제점은 민원 문제다. 비에스텍은 민원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시공을 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민원이 발생하면 최 대표가 직접 나서서 해결한다. 최 대표는 '민원은 지역의 주민들에게서 주로 발생한다. 민원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민들의 편을 최대한 제공해주면서 주민들과의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다' 고 언급했다.



태양광 발전소가 최후의 노후 수익으로 각광 받으며, 대부분의 사업주들은 서류작업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이 많다. 최한길 대표와 손유진 대표는 복잡한 서류작업부터 공간인증을 다운로드와 사용방법 안내까지 세세한 서비스를 실시하는 등 사업주 친화적인 서비스를 펼침으로써 사업주들의 높은 만족도를 이끌어내고 있다.

기초에 충실한 기업, 자연과 인류를 생각하는 일류기업이 될 것

태양광 발전설비, ESS설치 및 시공을 주요 사업으로 펼치고 있는 비에스텍은 해외 진출도 적극 모색 중이다. 이와 함께 연료전지 사업 분야도 활발하게 연구개발 중이다. 최 대표는 'LNG에서 수소를 발생시켜 연료전지화 하는 사업이다. 주박용부터 소규모 상가 및 건물, 발전소 건설까지 준비 중이다. 앞으로 정부에서 이 분야에 대한 많은 지원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수소를 전기로 발생할 때 생기는 물은 난방용으로 사용하고, 전기는 에너지로 사용하는 방법을 연구 중이다' 라고 언급했다.

이와 같은 비에스텍의 성장은 최한길·손유진 공동 대표의 철저한 업무분담의 시너지 효과에 있기에 가능했다. 부두사이(가)도 한 이들 공동 대표는 철저한 업무분담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였다. 전기 전문가로 오랜 시간 활동했던 최한길 대표는 현장 공사를 전담하고, 보험회사에서 재무와 설계 전문가로 활동했던 손유진 대표는 재무와 세무,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다. 최한길, 손유진 공동 대표는 마지막으로 '기초에 충실하려고 항상 노력한다. 자연과 인류를 생각하는 일류기업이 되고자 한다. 전 세계에 비에스텍이라는 브랜드를 널리 알리는 것이 가장 큰 목표다. 비에스텍은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기업으로서 어떤 환경에서도 신뢰받는 기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고 포부를 전하며 앞으로의 선전을 다짐했다.

Related Articles

관련기사

스포츠서울 2018.12.16

태양광, ESS 분야의 차별화된 기술력과 전문성으로 무장



[스포츠서울 신재영기자] 화석 연료 사용으로 인한 환경 피해가 심각해지면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때 국내 친환경 에너지 개발 분야를 선도하는 (주)비에스텍(대표 최한길)에 세간의 이목이 모아진다.

전기공학을 전공한 최한길 대표는 전기 기사/기능장, 전기 고급 설계사, 전기 특급 감리원, 전기 훈련 교사 자격을 취득한 전기 엔지니어이다. 그는 새만금 태양광 발전 공사와 에너지저장장치(ESS) 공사, 수상태양광 공사, 대구 성서공단과 상수도사업소의 태양광 발전 공사 등 한화등 대기업과 중견기업들이 진행한 국내외 대형 프로젝트에 시공 책임자로 참여했다. 이후 탄탄한 실력과 전문성을 토대로 (주)비에스텍을 설립하고 태양광 발전 보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대구광역시에서 본사를 두고 있는 이 업체는 뛰어난 기술과 많은 시공 경험을 가진 전기, 토목, 구조물 등 관련분야의 엔지니어를 다수 보유하고 태양광 발전 인허가, 토지 개발, 설비 시공 · 운영을 총괄한다. 각 분야의 협력 업체들과 발전 설비의 품질을 최대로 끌어 올릴 수 있도록 연구하면서 신소재 포스맥 등을 사용한 태양광 구조물과 세계 최고 제품으로 평가받는 한화/현대/엘지의 태양광 모듈을 사용하며 소용량 주택용 태양광 발전 설비에서부터 수상태양광, 최첨단 ESS시스템까지 시공할수 자체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비에스텍이 주도하는 태양광 발전 사업은 친환경 미래 에너지를 창출하는 것으로 설비 수명이 25년 이상이어서 경제성이 높고 유지 · 보수 · 관리비용이 적으며 주변 오염이나 민원 발생률이 낮다.

임야나 농지에 시공하면 최대 25년간 사업을 운영할 수 있고 발전된 전기 판매 수익이 안정적이어서 노후 대비 재테크로 인기가 높다. 이 업체는 현재 베트남 평화성에 215메가 태양광발전 프로젝트개발에 컨소시엄으로 참가하고 있으며 대구 인근 진광공단에 태양광 1메가 및 ESS 3메가 설비를 자체기술로 시공중에 있다.

한편, 건축물, 플랜트, 변전소의 전기 설비 공사등 다양한 경험을 토대로 태양광 발전 설비 설계, 부지 정리 토목공사, 구조물 제작 설치 공사와 감리 · 유지 · 보수, 전기 공사에 관한 베스트솔루션 개발에 힘쓰고 있다.

최 대표는 "해외 사업 시 수익금 일부를 해당 국가의 어린이를 교육시설에 기부할 예정"이라며 "난립해 있는 무면허 무시공 무원칙 태양광 업체들의 부실시공과 유지 · 관리 소홀로 인한 태양광발전 사업자들의 피해가 크므로 이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http://www.sportsseoul.com/news/read/711505>
#csidxb181b490eb0c60ab4aefba8224bd180

헤럴드경제 2018.12월호

비에스텍

태양광·ESS 설비 시공력 탁월...세계시장 '노크'



전 세계의 탄소 배출을 감축하기 위한 노력이 신재생에너지로 집중되고 있다. 한국 역시 2018년 12월 '재생에너지 3020 이행 계획'을 발표하면서 신재생에너지 사용 보급을 구체화했다. 이런 가운데 신재생에너지 전문 기업 '비에스텍'이 '자연과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이라는 슬로건 아래 뛰어난 기술력을 앞세워 정직한 시공, 사업주 친화적인 시공 사업을 펼치며 큰 주목을 받고 있다.

25년 이상 사용해야 하는 반영구 적인 태양광에너지 발전소의 특성상 유지·보수비용을 절감하고, 안정적인 발전소 운영을 위해, 실력 있는 시공업체 선정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가운데 비에스텍의 최고 경쟁력인 기본에 충실, 기술력 있는 시공, 정직한 시공은 더욱 빛을 발하고 있다.

태양광 발전소 건설 과정을 보면 크게 토목, 구조물, 기초 공사, 전기 공사로 나뉠 수 있다. 비에스텍은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이 자신의 전공 분야를 맡아서 공사를 진행한다. 시공 전부터 사업주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하자가 발생할 여지를 최소화함과 동시에, 태양광 발전소의 가장 큰 문제점인 AS도 철저하다. 비에스텍은 타 시공사보다 훨씬 긴 5년 동안 무상 AS 기간과, 작은 하자가 큰 문제로 번지지 않도록 사후 모니터링 또한 철저하게 실시하고 있다. 태양광 사업의 또 다른 문제점은 민원 문제 역시 지역 주민들과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며, 최소화시켰다.

태양광 발전설비, ESS 설치 및 시공을 주요 사업으로 펼치고 있는 비에스텍은 해외 진출도 적극 모색 중이다. 이와 함께 연료전지 사업 분야도 활발하게 연구·개발 중이다.

비에스텍의 성장은 최한길·손유진 공동 대표의 철저한 업무 분담의 시너지 효과가 있기에 가능했다. 부부 사이인 공동 대표는 철저한 업무 분담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였다. 전기 전문가로 오랜 시간 활동했던 최한길 공동 대표는 현장 공사를 전담하고, 보험회사에서 재무와 설계 전문가로 활동했던 손유진 대표는 재무와 세무,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다.

이들은 "기본에 충실하려고 항상 노력한다. 자연과 인류를 생각하는 일류기업이 되고자 한다. 전 세계에 비에스텍이라는 브랜드를 널리 알리는 것이 가장 큰 목표다. 비에스텍은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가 집단으로써 어떤 환경에서도 신뢰받는 기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포부를 전하며 앞으로의 선전을 다짐했다.





BSTECH Best solution
Technology

(주) 비에스텍 대구광역시 동구 이노밸리로 42길 20-2, 1층 | 1F, 20-2, Innovalley-ro 42-gil, Dong-gu, Daegu, Korea
T. 053.636.0406 / F. 053.639.0406 / www.bstechess.co.kr